

시진핑 러 방문 '반미 연대' 결집하나

20~22일...정상회담 메시지 주목 푸틴 "중과 어깨 나란히 하고 협력" 우크라 전쟁 중재·무기 지원 촉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0~22일 러시아 국빈 방문으로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맞서는 '반미 연대'가 세 결집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평화 구상'을 앞세워 중재자이자 새로운 국제질서의 주도자로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를 내비치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 이란이 미국을 대척점으로 삼각 편대를 형성하며 밀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중국과 러시아는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방문으로 '반미 세력'의 결집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서방의 패권에 맞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미국은 자국의 명명을 굽하지 않는 러시아와 중국을 저지하려 하며 그런 정책은 갈수록 격렬하고 공격적으로 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러시아-이란이 미국-영국-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 등 서방측에 맞서 한편이 됐으며, 국제사회 영향력을 높이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양면적 태도의 국가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 경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시진핑의 이번 러시아 국빈 방문이 우크라이나 전쟁 교착과 사상자 증가, 국제형사재판소의 전쟁범죄 혐의 체포영장 발부 등에 맞닥뜨린 푸틴 대통령에게 대내외 이미지를 강화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진핑 주석은 또 미국에 대항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구축될 경우 중국이 이를 주도할 것임을 대내외에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WP는 전했다.

중국은 실제로 최근 중동의 양측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국교 정상화를 중재하며 '국제사회의 평화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방문의 주요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중재를 내세웠다.

WP는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미국의 패권을 종식시키고 양국의 이해관계에 맞게

국제기구와 규범을 재편하려는 열망을 공유하는 등 여러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방문으로 미국에는 중국과 협상할 필요성을, 유럽에는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중요성을 경고하는 한편, 중앙아시아-아프리카·중동 지역에는 중국이 미국보다 더 실행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시각은 회의적이다. 특히 시 주석의 방러 기간에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합의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중국은 러시아와 합동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러시아 석유의 최대 구매국으로 남아 전쟁 자금 조달에 도움을 주는 등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으며, 이 때문에 서방에서는 중국의 '우크라이나 평화 중재' 목표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중국은 '중립'이라는 공식 입장과 달리 사실상 러시아 편에 서왔고 우크라이나 측과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고 NYT는 지적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이란 간의 관계 정상화는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 중국의 '평화 중재'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



방글라데시 버스 추락 현장 조사하는 소방대원들. 방글라데시 소방대원들과 경찰이 19일(현지시간) 버스 추락 사고가 발생한 수도 다카 쉬브차르 지역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우디·이란 정상회담 합의...관계 개선 급물살

살만 국왕, 라이시 대통령 초청

최근 외교 관계를 복원하기로 합의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세이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고문 모하메드 잠시디는 19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살만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 국왕이 양국의 외교관계 복원을 환영하는 서한에서 라이시 대통령을 (사우디 수도) 리야드로 초대했다"고 밝혔다.

잠시디 고문은 라이시 대통령도 사우디 측의 초대를 환영했다고 전했다.

다만, 양국 정상회담의 정확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우디 국영 언론들은 아직 압둘아지즈 국왕의 서한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다.

이란 정부는 양국 외교장관급 협의를 통해 정상회담 장소로 세 곳을 추려내 사우디에 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과 사우디는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비밀 회담을 열어 단교 7년 만에 외교 정상화에 합의하고 2개월 이내에 상호 대사관을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사우디가 이란의 반대에도 시아파 유력 성직자의 사형을 집행한 사건을 계기로 양국의 외교 관계는 단절된 바 있다.

이후 사우디는 이슬람 수니파 중주국으로서, 이란은 시아파 맹주로 대립각을 세우며 첨예한 갈등을 벌여왔다.

이란은 예멘의 시아파 후티 반군 세력에 무기를 지원하고 사우디는 예멘 정부를 지원해 반군 지역에 폭격을 퍼부으며 대리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이란은 후티 반군 세력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관계 정상화 합의에 이어 사우디 국왕과 이란 대통령의 정상회담까지 바로 추진되면서 양국 관계는 급속히 가까워지는 모양새다. /연합뉴스



경찰에 둘러싸인 프랑스 연금개혁 반대 시위대. 프랑스 경찰이 19일(현지시간) 수도 파리에서 정부의 연금개혁 반대시위 참가자들을 둘러싸고 있다. /연합뉴스

세르비아·코소보 관계 정상화 '반쪽 합의'

EU 중재안 서명 없어

'발칸반도의 양측' 세르비아와 코소보가 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한 유럽연합(EU) 중재안의 세부 이행 방안이 합의했으나 서명에는 이르지 못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 알빈 쿠르티 코소보 총리는 북마케도니아 휴양지 오흐리드에서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주재로 12시간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이는 지난달 27일 잠정 합의된 11개 항에 걸친 관계 개선 중재안 이행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담 직후 보렐 대표는 "양측은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기 위한 중재안 이행에 합의했다"며 양측이 EU에 가입하길 원한다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코소보는 코소보 내 세르비아 공동체의 적정 수준 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EU와 구체적인 협상을 즉시 시작하기로 했다"고도 강조했다. 양측은 코소보 북부 세르비아 공동체 자치권 보장 문제로 오랜 갈등을 빚어왔다.

EU는 이밖에 중재안 이행 세부 방안 가운데 하나로 코소보와 세르비아 투자 및 재정지원을 위해 150일 이내 관련 회의를 조직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회담에서도 양측은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서명 없는 사실상의 '반쪽 합의'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UBS, CS 인수 타결... '블랙먼데이' 피했다

스위스 1000억 달러 유동성 지원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파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됐던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의 위기가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 UBS의 인수로 급한 불을 끄게 됐다. 이번 합의로 CS발 위기가 세계 금융 시장으로 확산하는 '블랙먼데이' 사태는 모면하게 됐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와 스위스 국립은행은 1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스위스 연방 정부와 금융감독청(FINMA), 스위스 국립은행(SNB)의 지원 덕분에 UBS가 오늘 CS 인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SNB는 이번 인수 지원을 위해 최대 1000억 달러의 유동성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수가 완료될 때까지 추가적 유동성

지원을 통해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연방 의회 역시 이 같은 조처가 CS와 스위스 금융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가장 적절한 해법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FINMA는 이번 인수 타결 이후로 두 은행의 모든 사업 활동은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린 켈러 서터 재무장관은 "(이번 인수는) 다른 어떤 시나리오보다 국가와 납세자, 세계 금융 안정성에 있어서 위험이 작다"고 말했다. 인수 총액은 32억3000만 달러로, CS의 모든 주주는 22.48주당 UBS 1주를 받게 된다.

지난 17일 증가 기준 CS의 주당 가격은 1.86 스위스 프랑이었다. 이를 달러로 전환한 시가 총액은 약 80억 달러다.

UBS는 인수 이후 CS의 투자 은행 부문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돈돈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